

# 여야 공천률, 민심 반영·현역 페널티·신인 가산점 강화

### 국힘, 하위평가 10% 무조건 컷오프... '유산 공천' 우려 불식 과제 민주, 하위 10%면 감산비율 30%... 친명 아닌 시스템 공천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물갈이' 기준을 계량화하는 후보 공천 규정을 각각 마련하고 본격적인 후보 공천작업에 들어간다.

공천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의 미비 또는 부족으로 낙천자들의 반발 빌미를 제공하거나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 부작용이 생겼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8일 기준 양당이 마련한 공천 규정에 따르면 여야 모두 당내 경선에서 '민심(民心) 반영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후보별 평가 과정을 계량화한 '시스템 공천'으로 인적 선택을 예고했다는 공통점을 보

인다.

또한, 여야 모두 정치신인 가산점을 부여하는 점과 공천 신청 부적격 내용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현역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 한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현역 교체지수'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 합산 평가)가 하위권 10%에 들면 컷오프된다. '하위 10% 이상 30% 이하'는 경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한다. 7명이 컷오프, 18명이 20% 감점 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22명)은 15%를 더 감산한다. 여기에 최대 5년 이내에 탈당해 무소속 출마(3명)한 경우에는 최대 7%를 추가로 감산한다.

반면, 민주당은 일괄적 컷오프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 대신 "현역 기득권 타파"의 기조 아래 하위 평가자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까지 현역 평가 하위 20%의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했지만, 작년 12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하위 10% 이하 의원은 감산 비율을 30%로 높이도록 당헌이 개정됐다. 30% 감산 비율은 "사실상 컷오프나 다름없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정치 신인이나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는 여야가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첫 출마자는

최대 7% 가산점을 적용하고, 여성은 10% 추가 가산점을 결정했다. 만 34세 이하 첫 출마자는 20% 가점을 받는다.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도 가산점 대상이다.

민주당은 현역 총선거확단 차원에서 공관위에 현역 의원 불출마 선거구 등 전략 선거구에 청년·여성을 우선 공천하고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기준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여성, 장애인, 청년은 경선 득표의 최대 25%를 가산하는 당헌 원칙도 적용된다.

공천 신청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흐름에도 여야 간 큰 차이는 없다.

국민의힘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新)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기준으로 못 박았다. 유승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적발된 경우 공천을 못 받는다.

민주당 역시 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강력범죄·성폭력·유승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력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해 경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여야가 이처럼 시스템 공천으로 인적선택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향후 공천 과정에서 실제 계량적 기준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는지가 여야 각 당의 총선 성적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산 인사 내리쬐기', '친명 공천·비명 학살'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하지 않을 경우 여야의 '시스템 공천'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

###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려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 과거 이런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됐지만, 지금은 다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진화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다짐했다.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한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에 이어 내놓은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이것이 우리의 정치개혁, 그리고 특권 포기 공약 시리즈"라며 "정치개혁과 특권 포기를 진짜로 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국민께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국민께서 찬성하시겠나, 반대하시겠나"라고 했다.

/연합뉴스

### 총선 브리핑

## 노희용 "교통약자 위해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에 출사표를 던진 노희용 예비후보는 18일 "무등산에 관광케이블카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정상을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무등산 정상이 상시 개방된 이후 무등산 방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관광객 증가, 교통약자의 무등산 관광 등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노 예비후보는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는 관광객 유치, 지역 재정비, 동남구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 영재고등학교 유치 ▲



광주전 동남 메가타운 조성 ▲전남대 병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등을 제안했다.

노 예비후보는 "주민들의 크고 작은 다양한 의견을 하나도 빼지 않고 경청해 반드시 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 갈 사는 광주 동남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1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노 예비후보는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광주시 동구청장 등을 지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조인철 "광주 국비 예산 4조원 시대 열겠다"

### 서구갑 예비후보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한 조인철 예비후보는 18일 "현재 3조원 수준의 광주 국비 예산 4조원 시대를 열어, 일자리를 떠난 시민과 자녀가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를 4차 산업 중심의 거점 도시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상화 ▲광주 경제 발전 ▲부자 서구 만들기 등 3개 분야에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노 예비후보는 "빛고를 테크노밸리가 될 상무 도심융합특구를 조속히 완성해 '부자 서구'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며 "특구에 1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예술·체육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광주 발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구 파크골프장·야영장 신설, 체육동호회 활성화 등으로 시민의 여가와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경로당 주 5회 점심제공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역시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5개 과제로 분류한 정책 공약은 1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 정책 발굴단'을 출범시켜 구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노 예비후보는 제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장, 문화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민선 7기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일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등가납,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